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러시아월드컵은 여러 흥미로운 장면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끝났다. **1**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16일(한국시간) 프랑스와의 결승전 도중 비디오판독이 선언되자 억울해하고 있다. **2** 잉글랜드의 케인은 득점왕에 올랐지만 8강전부터는 침묵해 아쉬움을 남겼다. **3** 아르헨티나 수문장 카바예로는 조별리그 크로아티아전에서 어이없는 실수로 0-3 패배의 장본인이 됐다. **4** 메시는 아르헨티나와 함께 16강전을 마친 뒤 초라하게 돌아갔다. **5** 카잔의 기적'을 만든 한국 선수들이 한데 뒤엉켜 환호하는 동안 독일 선수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6** FIFA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찾은 마라도나는 거둬들인 기행과 약담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다. **7** 브라질의 네이마르는 발군의 기량을 여실히 감아먹었다. **8** 결승전 도중 피치로 난입한 푸시 라이엇은 '욕에 타'였다. **9** 일본은 16강에 올랐지만 폴란드와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공 돌리기로 비난을 자초했다. **10** 발로이(앞줄 왼쪽 2번째)는 조별리그 잉글랜드전에서 파나마의 월드컵 본선 첫 골을 신고했다.

AP신화뉴스

말 많고 탈 많은 VAR... '악팀 호랑이' 케인

〈비디오판독 시스템〉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내분...메시, 조기에 집으로
음바페·네이마르 'PSG 액션스쿨' 눈총
경기장 비매너로 조롱거리 된 마라도나
반체제 록그룹 '푸시 라이엇' 난입 눈살
獨 탈락시킨 韓...잘 싸우고도 욕 먹은 日
아이슬란드·파나마의 축구 열정엔 감동

32일간 전 세계가 작은 축구공 하나에 희로애락을 담아 함께 땀 성대한 축제가 막을 내렸다. 환희와 절망, 감동과 증오가 씨줄과 날줄로 교차한 시간이지만, 이제 어느덧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서게 됐다. 2018러시아월드컵을 흥미진진하게 만든 장면들을 모아봤다.

1 VAR을 '재심'하라!

16일(한국시간) 모스크바 루즈니키스타디움에서 펼쳐진 프랑스-크로아티아의 결승전 전반 38분 앙투안 그리즈만의 페널티킥 골까지 포함해 비디오판독(VAR·Video Assistant Referee)이 러시아월드컵을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일종의 '즉석재심' 제도인 VAR은 이번 대회를 통해 월드컵에 처음 도입돼 판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일정 수준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심에게만 부여된 VAR 실시권한은 '일관성'과 '형평성'이라는 새로운 논쟁을 낳았다.

2 금세 세력 잃은 '허리케인'

'축구종가' 잉글랜드는 52년만의 결승 진출과 우승 희망에 들떴으나, 준결승에서 크로아티아의 벽을 넘는 데 실패했다. 조별리그 첫 2경기에서 5골을 터트린 득점왕 해리 케인의 침묵이 아쉬웠다. 케인은 이

번 대회에서 총 6골을 넣었는데 필드골은 3개에 그쳤다. 그나마 그 중 한 골도 동료의 슈팅이 뒤꿈치에 맞고 상대 골문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었다(파나마전 '강제 해트트릭'). 16강 콜롬비아전에서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보냈을 뿐, 8강전부터 3·4위전까지 3경기에선 헛심만 쳤다.

3 골키퍼 수난시대

아르헨티나 골키퍼 윌리 카바예로는 6월 22일 크로아티아와의 D조 2차전 후반 8분 끔찍한 실수를 범했다. 안일한 볼 처리로 안테 레비치에게 선제골을 내줬다. 이 실점이 빌미가 돼 0-3으로 완패한 아르헨티나는 자칫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뻔했다. 카바예로는 프랑스와의 16강전까지 다음 2경기에 모두 결장했다. 우승국 프랑스의 수문장 위고 로리스 역시 16일 결승전 후반 24분 마리오 만주키치에게 볼을 빼앗겨 실점하는 망신을 자초했다.

4 아르헨티나의 내분과 스타들의 조기 퇴장

우승후보였던 아르헨티나는 16강에서 멈춰 섰다. 리오넬 메시 또한 1골·2도움의 초라한 성적으로 자신의 3번째 월드컵을 마쳤다. 메시를 비롯한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대회 내내 호르헤 삼파올리 감독과 불화를 빚었다. 선수기용을 놓고도 감독을 불신했다. 삼파올리 감독은 결국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메시뿐 아니라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우루과이의 루이스 수아레스, 브라질의 네이마르 역시 결승 근처에도 이르지 못했다.

5 디펜딩 챔피언 일찍 귀가시킨 한국

주요 외신들은 한국, 독일, 멕시코, 스웨덴이 속한 F조에서 독일과 멕시코의 동반 16강행을 점쳤다. 결과는 크게 어긋났다.

FIFA 랭킹 1위 독일이 최종전에서 한국에 0-2로 털미를 잡혀 조 최하위로 추락했다. 최근 3개 대회 연속 디펜딩 챔피언의 조별리그 통과 실패다. 스웨덴과 멕시코가 조 1·2위로 생존했다. 6월 27일 카잔에서 열린 경기에서 한국은 후반 추가시간에 터진 김영관-손흥민의 연속골로 월드컵 역사에 길이 남을 최대이변을 낳았다.

6 불청객이 된 VIP 마라도나

아르헨티나의 디에고 마라도나와 브라질의 펠레는 20세기 세계축구의 양대 아이콘이다. 그러나 은퇴 이후 행적에서 두 스타는 큰 실망감만 안기고 있다. 특히 마라도나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찾아서도 기행과 약담을 멈추지 않았다. 경기장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동양인을 비하하는가 하면 과도한 애정행각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급기야 심판 판정에도 토를 달았다가 FIFA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조롱거리로 전락한 일그러진 영웅이다.

7 PSG '직장동료'의 '액션스쿨' 공동설립

네이마르와 킬리안 음바페(프랑스)는 2017~2018시즌을 앞두고 역대 세계축구 이적료 1·2위로 함께 파리 생제르맹(PSG) 유니폼을 입었다. PSG '직장동료'인 이들은 이번 대회에서 나란히 구설에 올랐다. 네이마르는 멕시코와의 16강전 도중 미겔 라운에게 발목을 밟힌 뒤 크게 다친 듯 데굴데굴 굴러 눈총을 샀고, 음바페는 8강 우루과이전과 4강 벨기에전에서 암살과 시간 끌기로 비난을 샀다. PSG도 졸지에 '액션스쿨'로 둔갑했다.

8 결승전 망친 푸시 라이엇

프랑스-크로아티아의 결승전 후반 7분

경찰 복장을 한 여성 3명과 남성 1명이 그라운드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러시아의 반체제 록그룹 '푸시 라이엇(Pussy Riot)' 멤버들이었다. 이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인권탄압과 비민주적 통치에 저항하는 활동을 펼치다 2012년 이미 한 차례 체포와 구금을 당한 바 있다. 후진적인 러시아의 정치상황이야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정치와 무관한 스포츠행사였기에 푸시 라이엇의 행위 또한 정당화될 순 없다.

9 '공 돌리기'로 퇴색된 일본의 선전

일본은 2002한·일월드컵과 2010남아공월드컵에 이어 다시 16강에 올랐다. H조에서 1위 콜롬비아(2승1패)에 이어 2위(1승1무1패)로 16강행 티켓을 따냈다. 벨기에와 맞붙은 16강전에서도 후반 초반 내리 2골을 뽑아 사상 첫 8강행 희망에 부풀었으나 거짓말 같은 2-3 역전패를 당했다. 일본 특유의 패스축구, 이른바 '스시티카'가 빛났다. 그러나 폴란드와의 조별리그 최종전(0-1 패) 막판 추가 실점 없이 경기를 마치려다 역풍에 휩싸였다. 후반에서 의미 없는 공 돌리기로 일관해 전 세계의 야유를 받았다.

10 패배에도 굴하지 않은 열정

아이슬란드와 파나마는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았다. 결과는 모두 낙망. 그러나 이들의 도전정신만큼은 송고했다. 특히 G조의 파나마는 6월 24일 니즈니노브고로드에서 벌어진 2차전에서 잉글랜드에 소나기 골을 허용한 채 1-6으로 대패했지만, 0-6으로 뒤진 후반 33분 펠리페 발로이의 만회골이 터지자 마치 승자인 듯 열광했다. 파나마의 월드컵 본선 첫 골이었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숫자로 풀어 본 러시아월드컵

19위 한국, 상금 91억원
'12개 자책골' 역대 최다
72km 뚫 페리시치 투혼
(크로아티아)

▲2=챔피언 프랑스의 통산 우승 횟수

▲4=이번 대회에서 나온 레드카드(경기당 0.06장)

▲6=득점왕 해리 케인(잉글랜드)의 골. 이 중 3개는 페널티킥 골

▲10=대한민국대표팀이 받은 옐로카드

▲11=대한민국대표팀이 기록한 유효 슈팅(3경기에서 총 33개의 슈팅 시도. 이 중 9개는 벗어남. 13개는 상대 수비수에게 막힘)

▲12=이번 대회에서 나온 자책골(역대 최다·종전 기록은 1998년 6골)

▲13=대한민국대표팀 GK 조현우가 기록한 세이브 숫자(전체 32개국 골키퍼들 중 8위·세이브 성공률은 81.2%로 전체 5위)

▲16=이번 대회 팀 최다득점을 기록한 벨기에가 성공시킨 골

▲22&29=이번 대회에서 성공한 페널티킥 골과 페널티킥 시도 횟수

▲27=이번 대회 최고 골키퍼(골든 글러브)로 선정된 벨기에의 티보 쿠르투아가 기록한 세이브와 최다 공격시도를 기록한 브라질 네이마르의 공격 횟수

▲33&63=대한민국대표팀이 상대에게 당한 파울과 기록한 파울

▲72=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은 거리를 뛰어다닌 크로아티아의 이반 페리시치가 대회 동안 커버한 거리(단위는 km)

▲110=이번 대회에서 한 골 이상 기록한 선수

▲129=이번 대회에서 나온 오픈플레이 골

▲169=이번 대회에서 나온 골. 32개국 출전 체제가 시작된 1998년 프랑스대회부터 월드컵에서 터진 골은 171~161~147~145~171개. 이번 대회 경기당 득점은 2.6골.

▲301&352=최다수비·최다공격 부문 1위를 차지한 크로아티아가 기록한 수비(클리어·타클·세이브 합계)와 공격 횟수

▲405=이번 대회에서 최소 한 번 이상 슈팅을 시도한 선수

▲485=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성공시킨 스페인 세르히오 라모스가 기록한 패스 성공 개수

▲3336=가장 많은 패스를 성공시킨 잉글랜드의 패스 합계

▲4만9651=32개국이 성공시킨 패스. 경기당 775.8개

▲150만&800만=대한민국이 FIFA로부터 받은 러시아월드컵 대회 준비금과 종합순위 19위 상금(이하 기준은 달러)

▲2800만&3800만=준우승국 크로아티아와 우승국 프랑스의 상금

▲4억=32개 출전국에 돌아가는 총 상금

김종천 전문기자 marco@donga.com